

AT THE POOL OF BETHESDA

(John 5:1~9)

"...Jesus said to him, 'Arise, take up your pallet, and walk.' And immediately the man became well, and took up his pallet and began to walk..."

In Jerusalem there was a feast of the Jews. Everybody gathered to Jerusalem for this big holiday. People came from all over. Jesus came up from Galilee to attend. What's so interesting is that in this passage they talk about the pool of Bethesda. "Now there is in Jerusalem by the sheep gate a pool, which is called in Hebrew Bethesda, having five porticoes" (v. 2). Porticoes are colonnades or cloisters that were probably used to shelter the sick. Bethesda was known as the house of mercy because an angel of the Lord would visit during certain seasons and touch the water, cleansing it for miracle healings. All kinds of diseased people who were "sick, blind, lame, and withered" would come and wait for the moving of the waters (v. 3). Whoever stepped in to the pool first, after the stirring of the water, was made well from whatever disease with which he was afflicted. At this place, Jesus stood. He stood at the well. Actually, He is the well, the original well. The Old Testament tells us, "In that day a fountain will be opened for the house of David and for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for sin and for impurity" (Zech. 13:1). Isn't this prophecy exactly realized as Jesus stands at the pool of Bethesda?

As the multitude of sick people lay around this pool of water, Jesus' eyes caught one man who nobody else cared about. This poor man had been sick for thirty-eight years. For thirty-eighty long years he suffered and waited for the water of healing to touch him. Don't you think his condition was the worst possible? The Bible tells us that Jesus saw him lying there "in that condition" (v. 6). What wonderful eyes Jesus has to see! He looked at the widow of Nine whose son had died and caught her, and he looked at Zaccheus in the tree and caught him. The Bible tells us, "these are the eyes of the Lord which range to and fro throughout the earth" (Zech. 4:10). Jesus sees the poor and sick people. Jesus caught sight of the little man by the pool.

Jesus asked the sick man, "Do you wish to get well?" (v. 6). What a wonderful question! Interestingly, the sick man didn't answer "yes" but instead said, "Sir, I have no man to put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is stirred up, but while I am coming, another steps down before me" (v.7). Oh, how many Christians pray in similar fashion! They think their way, their understanding, and their know-how is right. Why did this man of thirty-eight years of suffering want to go to the pool first? As each year slips past, his sickness slows him down even more. His only desire is to go to the pool. Somebody asks him if he wants to get well and he just talks about getting to the pool first. He doesn't listen to other people, he doesn't hear the question being asked of him. His mind is centered on the pool. Just like many Christians today, this poor man tells Jesus that no one wants to help him get in the pool. He complains that other people always go first and that he is just one step behind. To him, everybody else is selfish and lives just for themselves. He doesn't answer Jesus' question. He only makes his own request, his own prayer for someone to help him into the pool. It doesn't matter to him if God is there to heal, he wants to go in

the pool first. He didn't say, "Yes, I want to get well". He has his own method, his own principle. He doesn't let Jesus handle the whole thing.

Truthfully, I can understand this man really wanting to get into the pool of Bethesda. He was sick for thirty-eight years. I admire his endurance. Isn't it amazing? He gets sick and doesn't give up. A lot of people would have quit. A lot of people would have stopped trying. This sick man just kept trying to crawl toward the pool. His only objective in life was to get into that pool. His method and principle were stuck on this pool. He truly thought if he went to the pool first he would get healed. Don't you think our faith is like that sometimes? Even when Jesus came, the Savior, the owner of the pool, we still ask for our own desire.

Christ ordered the sick man, "Get up, pick up your pallet and walk" (v. 8). He didn't have to go to the well. Jesus commanded him in the worst condition. Amen. Just as He commanded the paralytic, "Get up, pick up your bed and go home", and the man with the withered hand, "Stretch out your hand", so he told this sick man to rise and walk (see Mt. 9:6; 12:3). This sick man didn't listen the first time, but when Jesus ordered him he obeyed. When Jesus asked him the question, he didn't say "yes", but when He ordered him to "Get up", like he told Zaccheus to get down from the tree, he listened. In the last thirty-eight years of this man's life his bed took care of him, now he is ordered to take care of his bed.

What important it is to obey the Lord. It requires simple trust, "for with the heart a person believes, resulting in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he confesses, resulting in salvation" (Rom. 10:10). Faith is so important. You don't think, you just believe. The sick man practiced that faith when he obeyed Jesus' order. He became a witness to every other sick person. We have to have simple faith, even little faith. Jesus tells us, "Truly I say to you, if you have faith and do not doubt, you will not only do what was done to the fig tree, but even if you say to this mountain, 'Be taken up and cast into the sea,' it will happen" (Mt. 21:21). Listen carefully to what Jesus says,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at will I do, s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Jn. 14:13). If you ask and you don't believe, that's a problem.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and appointed you that you would go and bear fruit, and that your fruit would remain, so that whatever you ask of the Father in My name He may give to you" (Jn. 15:16). Regarding His ascension, Jesus said, "In that day you will not question Me about anything. Truly, truly, I say to you, if you ask the Father for anything in My name, He will give it to You" (Jn. 16:23). Amen.

My dear friend, do you have this simple faith? If you do then you will make amazing things happen. Your life will be an eternal blessing. Please, just as Jesus stood at the pool of Bethesda, which is the house of mercy, with all kinds of sickness and problems there, He now stands before you and wants to give you an order. Do you accept it? Are you ready to practice your faith? 

베데스다 연못에서 (요 5:1~9)



김성관 목사

“...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

베데스다 못과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절기인 이 축제의 날에 사람들이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여기에 참석코자 예수께서도 갈릴리에서 오셨습니다. 이 단락에서 흥미로운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열조절”. 여기서 행각은 주랑이라고도 불리는데 아마 병자들이 행각을 걸 곳 삼아 지냈던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뭄의 천사들이 내라와 물을 동하게 할 때 기적의 치유가 발생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습니다(3절). 물이 동할 때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자든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 바로 그 샘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참 샘물이십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슥 13:1). 이것이야말로 베데스다 못에서 계셨던 예수를 통해 정화하게 실현된 예언이 아니겠습니까?

버려진 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심

병자 무리들이 이 연못 주변에 누워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한 사람에게 눈길을 주셨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고통을 받으며 자신이 치유의 물 속에 들어가 나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상황이야말로 최악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그 사람의 “그 누운 것”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6절).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예수의 눈은 얼마나 사람을 가득했습니까? 예수의 눈은 나인 성의 아들 잃은 과부를 찾았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슥 4:10). 예수께서는 불쌍하고 병든 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 예수께서 연못 옆에 있는 소자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음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6절)”. 이 얼마나 의미 있는 질문입니까? 흥미롭게도 그 병자는 “예”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7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까?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이해, 자신들의 경험이 옳다고 믿습니다. 38년 동안 앓던 이 병자가 왜 무엇보다도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한 것일까요?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질병은 그를 더욱 동하게 만듭니다. 그의 소망은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와서 “당신이 낫고 싶소?” 하고 묻자, 그는 연못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질문은 듣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연못을 향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불평하듯이, 이 병자도 예수께 불평합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의 불평은 먼저 타인들을 향합니다. 그 자신은 그 불평의 대상에서 살짝 빠져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요청만을 말할 뿐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도와서 연못에 들어가게 하도록 요구하는 기도만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그 자리에 계시는가 하는 문제는 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는 그저 연못에 먼저 들어가고 싶을 뿐입니다.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구에 집착함

이 병자가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는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38년간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긴 인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아픈 중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아마 많은 이들이 도주하지하여 연못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그만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어떻게든 기어사라도 연못으로 가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일생에 유일한 목표는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방법과 그의 원리는 연못에만 묶여 있었습니다. 연못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가끔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구원자로, 치유의 연못의 참 주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망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8절). 그는 연못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하신 것 처럼(마 9:6),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하신 것처럼(마 12:13), 예수께서는 이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병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질문하셨을 때 “예”라고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일어나라” 하고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마치 예수의 음성을 들은 삭개오가 그 즉시 나무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도 즉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난 38년간 침상만을 의지하였던 그는, 이제 그 침상을 관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믿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하는 성경 말씀처럼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단지 믿으십시오. 병든 자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병자들에게 예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요 14:13). 만약 여러분이 구하고도 믿지 못한다면,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 15:16). 예수의 승천에 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요 16:23). 아멘.

준비하라

사랑하는 총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단순한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은총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데스다, 곧 자비의 집에서 온갖 질병과 문제들과 함께 서 계셨듯이, 그분은 오늘날도 여러분 앞에 서 계시며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리려고 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실천할 준비가 되겠습니까? ㄹ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할 때(행 14:24-28), 그는 결코 자신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고 얼마의 결산자가 생겼다고 보고하지 않았다. 그의 보고의 핵심은 전도 여행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성도들에게 보고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떻게 응답되었나를 나누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행 14:27). 또한 바울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였고, 그로 인해 교회에서는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에게 문안의 편지를 보냈고, 유다와 실라 등을 보내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게 하였다(행 15:22-32).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후속사역'이다.

우리는 바울의 선교 보고 모습과 그에 따른 교회의 후속사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바울은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를 파송했던 교회 역시 새로 복음을 들은 이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바울의 이러한 '후속사역'의 모습은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의 편지 곳곳에서 나타나 있다. 성경에서 '~서(書)'로 소개되는 것의 대부분은,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곳에 세워진 교회나 성도의 상황을 듣고 기도하며 보내 보낸 편지들이다. 이러한 '후속사역'의 결과 어떤 일들이 나타났는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의 사역에 동참하였고, 빌립보에서는 교회가 개척되었으며, 여러 이방인들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엡 2:8,9)는 절대 진리를 확신할 수 있었다.

이번 1·2차 단기선교를 다녀온 700여 명의 중천의 단기선교사들과, 기도와 물질로 그들과 동행한 중천의 성도들은 성경에서 나타난 이 '후속사역'에 대해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선교사는 매일 자기를 부인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결코 자신이 무엇을 했음을 자랑할 수 없다. 그에게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만을 '간증'할 수 있을 뿐이다. 나의 사역보고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을 확인시키는 것인지 깊이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편지를 보냈다, 다음에 꼭 다시 오겠다고 쉽게 약속하지는

2002 중천단기선교 단기선교, 꼭 알아야 할 일들 ⑥ 끝나지 않은 단기선교, '후속사역'

않았는가?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의 변화를 기도하며 그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지키지 못할 우리의 지나가는 말 한 마디로 상처받은 그들을 생각하자. 복음 외의 것으로 그들에게 기대감을 준 책임을 우리는 져야 한다. 정말 복음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만 전하고 왔는가?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들은 현지인들이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권면의 편지를 보내자. 선교를 나가 사진을 찍고 주소를 적는 것은 우리의 사역 결과 보고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사진과 주소를 가져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거나 지속적으로 교제할 필요가 있는 현지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단기사역은 일 주일, 열흘, 보름이 아니다. 단기선교를 가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다녀와서 다음 사역자들이 가는 그 순간까지가 우리의 사역 기간이다. 갓난 아이를 물가에 놓고 돌아와 그 아이를 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 기도로, 편지로 아니면 다음 사역으로 이들이 영적 아버지로 성장하도록, 또 다음 선교사로 성장하도록 '후속사역'을 감당하자.

복음을 듣고 다시 바울과 교회의 권면을 받은 이방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행 15:30,31)".



우즈베키스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김 병 준 (외선부 교사, 연합팀 우즈베키스탄 단기선교단원)



할렐루야! 8월 13일부터 21일까지의 일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즈베키에 갔다 왔습니다. 우즈베키 연합팀은 노방 전도 사역, 어린이 사역, 심방 사역으로 우즈베키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지난 단기선교 때와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기도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장로님과 컨사님, 집사님으로 구성된 우리 팀은 처음의 우려(?)

와는 달리 기도와 사랑으로 편하고 따뜻한 가족과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사역

지역에서도 이어져 단합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

었습니다. 처음 우즈베키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아직도 공산국가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밝아보이지 않았고요. 그러한 느낌 때문에 사역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즈베키란 나라는 타종교에 배타적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이슬람에 얽매어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임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랑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르칸트 지역에서 어린이 사역을 할 때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어린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변화 시켰습니다. 심방 사역에서는 어려운 민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노방전도 사역 역시 어려움이 많았(법적으로 전도가 금지되어 있어서) 개월라시 사역으로 예수님을 알고 전하는 데 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땅을 사랑하시지만, 특히 우즈베키 땅에 대해 많은 사랑을 품고 계신다고 느꼈기에 저는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이 복음을 들고 그 땅에 이르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2002 단기선교 3차(10-12월) 모집

2002 단기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 9월까지 67개팀 700명이 사역을 마쳤습니다. 이제 3차팀(10-12월)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팀 구성/각교구 및 부서
2. 팀 구성원인/10-12명
3. 기간/02. 10.1. - 12.31
4. 자격/ 1) 우리 교회 세례교인으로,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사람
2) CMTC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5. 선교할 나라/ 외향 국가(다만 선교위원회와 협의할 것)
6. 팀 훈련/팀장 주재 하에 팀 훈련을 이디 언어훈련, 전도훈련이 포함되어야 함.
7. 기타/팀 구성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팀장, 총무는 본부에서 임명합니다.
8. 신청할 곳/선교단 4층 선교위원회실

2002 3차 CMTC 모집

1·2차(1-9월)까지의 단기선교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3차(10-12월) 팀을 모집 중이며 그 동안 CMTC를 마친 사람이 900여 명입니다. 교회는 1년 내내 계속적인 단기선교를 계획하며 제3차 CMTC(정규)를 모집합니다.

개강일 / 주일만 9월 29일(주) 18:30-21:00

토요일 10월 5일(토) 17:00-20:30

장 소 / 베다니홀

2차 정탐팀, 사역지 선정을 위해 사역 중

다음 선교 사역지 선정을 위해 지난 17일 출국한 2차 정탐팀들이 믿음의 눈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을 바라보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 정 : 9월 17일~10월 4일

정탐지 : 중앙아시아, 동부유럽, 동중 지역

선교지에서 만난 아이

정은 실 (대학부 터키어 단기선교)

"100년 전만해도 한국에는 예수님을 알고 영접했던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예수님을 전하러 여기에 왔습니다"

터키에서 교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매일의 사역이 똑같았다.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다. 참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한 아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어떤 지역에서 우린 동물원의 원숭이가 되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신기해 하고 좋아하며 만져 주었다. 그 지역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전하러 내려 아이들만 달려오니 돈이 있는나고 몰았다. 잘 살 피르니 동네에서 구걸하는 아이들 같았다. 부모님 이 안 개선진 손에 무엇을 들고 팔아달라고 계속 우리를 따라다녔다. 물론 난 돈이 하나도 없었다. 사실 이것도 그 아이들에게 주고 싶진 않았다. 돈이 그들의 삶을 잠시 완화해 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아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기에, 그 아이들을 보며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동네 어른들은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고 심하게 꾸짖으며 아이들을 내 쫓아버렸다. 심지어는 때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분명히 우리를 배려해서 그런 행동을 했지만 고마와 마음보다는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왔다. '아버지, 저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세요'. 짧게 기도했는데 구걸하던 아이들 중 한 명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아주 기뻐했다. 분명히 그 아이는 또 우리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왔을 이 분명했다. 먹을 것이냐 돈이냐. 그러나 이번엔 무가 아니라 그 아이 혼자였다. 난 그 아이에게 다가 갔고 내가 정말 그 아이에게 주고 싶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겐 성경을 주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나는 5가지 색깔의 구슬 팔찌를 통해 그 아이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었다. 황금색은 천국, 검은색은 죄, 붉은색은 보혈, 흰색은 구속, 녹색은 영생에 비유하여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그 아이의 눈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은 반복학습이 중요하기에 하나하나 구슬의 의미를 다시 물어왔는데 그 아이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돈을 줄 순 없지만 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해 줄게". 그 아이의 팔에 묶여진 5개의 구슬 팔찌를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지역에서 분명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살아 가는 이 아이가 진정한 예수 믿고 변화해 갈 달라고. 그 아이도 "예수님, 사랑해 주세요.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지금도 그 아이가 생각한다. "하나님 그 아이 예수님의 아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지를 가기로 온전히 하나님께 묶였던 날들

김 소 연 (대학부 루마니아 선교팀)

선교준비를 하기 전에는 주로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다. 그리고 나에게 선교를 갈 자격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팀장 언니가 단기선교를 권했을 때도 나는 준비도 안 되었고 내 믿음은 아직 선교를 갈 정도가 아니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팀장언니가 선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끄실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목상하는 중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사역을 하기 전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말씀을 읽고, 제자들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 주님께 완전히 의지해서 사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랬다. 나의 능력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말한 것 자체가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에 전혀 힘써 선교에 동참하기로 했다.

선교 준비를 하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배웠다. 아침 10시부터 늦은 시간까지 직장이나 학교, 세상의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지냈다. 세상의 친구들과의 나눔과는 전혀 달랐다. 이러한 삶은 나를 변화시켰고 믿음이 인생의 초점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너무 선교준비에 집중을 하니 단절도 있었다. 우선 평소 생활 리듬이 많이 무너졌고 어머니께도 구중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이것들로 인해서 선교를 가기로 결심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분명 지금까지 내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접하여 결심하고 준비해 온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임을 믿는다. 앞으로의 내 삶도 전혀 기도에 힘써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소망한다.



젊은이들의 선교 후기

목적 상실이 부른 불만

2002년 단기선교에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에서는 15개 팀에 160여명의 젊은이들을 파송했다. 이것은 사람이 정형화시킨 선교가 아닌 성경적 선교로 돌아 가자는 취지였고, 설로 많은 팀이 선물을 나누어 주는 등 물질에 의존한 선교가 아닌 순수하게 복음의 힘 자체에만 의지한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힘을 경험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번 선교를 통하여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전했으며 삶의 초점을 세상에서 하늘로 전환하고 선교에 소망을 가졌다. 그러나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선교의 목적을 상실'하고 '선교팀이 선교의 목적을 상실'했을 때 불만이 나타나기도 했다.

첫번째 '개인적으로 선교의 목적을 상실'한 경우이다. 선교와 삶을 따로 구분하여 생각하므로 선교 갔다와서는 자기 전과 다르없이 선교적 삶을 멀리하거나 선교적 삶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에 다니는 소감을 "심상스런 왔다"라고 반응하게 된 것이다. 그 이유인 즉은, 가서 얻은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자기 전에는 돌아올 때 평가 큰 성령의 체험을 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가서 복음만 전했을 뿐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충격이나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대답에는 아주 큰 오류가 있다. 우리가 선교를 왜 갔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그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복음만 전했을 뿐'이라는 말은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친 말이다. 복음을 전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복음을 전했으면 선교를 아주 잘 한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또 무엇을 원했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갔었는가? 인생의 심오

한 진리? 천국의 문을 보길 원했는가?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이들은 삶의 초점이 '주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자신은 뭔가를 얻길 원했는데 주님의 명령만 수행하고 온 것이 불만이다. 자신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남들에게만 주고 온 것이 불만이다. 착각하지 말자. 선교는 내가 바를 것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복음을 전했으면 그것이 끝이다. 뭔가 얻은 것이 있다는 고백은 그 위에 선물로 주어진 것들인지 내가 당연히 취해야 할 것이 아니다.

또한, '선교팀이 선교의 목적을 상실' 함으로 말미암아 불만이 발생한 경우이다. 그 불만은 앞의 불만과는 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팀의 스케줄 때문에 이동하기에 바빠했다는 것과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다고 복음전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짐작컨대 이러한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속해있는 팀의 팀장은 선교에 대해 크게 착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교회의 취지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었지 많은 장소를 다니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야 이름을 적는 것이 목적이 되면 어찌겠다는 것인가?

단기 선교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무엇을 얻으려고 위한 것도, 많은 장소를 돌아다니기 위한 것도, 이름을 적으려고 위한 것도 아니다. 오! 선교를 준비하는, 혹은 회망하는 젊은이들이여! 선교 가기 전 성경을 읽자. 그 안에 선교의 목적과 방법이 명료하게 적혀 있지 않은가?

(권오열 기자)

구역장 영성훈련

이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9교구 김영훈 목사



믿음이 고난을 이긴다. 믿음은 논리가 아니다. 인간적인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다. 복음은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믿음을 이해의 차원으로 떨어뜨리면 아픔과 같은 한탄을 하게 된다. 아픔은 아들이 불모로 잡초고 지를 해야 할 돈이 되돌아오지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아픔의 무지에서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에서 나왔다. 우리 삶 속의 불행과 불만도, 말씀을 모르는 무지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함에서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아픔 역시 하나님을 있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육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었다. 그는 물질이 필요하나 물질이 없다. 그리고 물질을 구하기를 원하여 물질이 생겼으나 아들이 없어졌고 도둑으로 의심받을 만한 돈이 생겼다. 상식적으로는 실로 최악의 상황이다. 충분히 절망할 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며 감옥에 갇히는, 아픔보다 더 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신뢰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의 경계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지식이나 능력, 경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인 것이다.

고난은 분명 육적인 피해를 주지만 영적으로 도움을 준다. 요셉의 형제들을 보라. 처음엔 형제들이 자신들의 독실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자 요셉에게 한 일을 회개하며(창 42:21)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나 말씀을 모르던 그리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픔처럼 격정하며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러면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는다. 현재가 축복이나 저주나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결정된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한제희(부), 한준규(자)’ 성도를 소개합니다



한제희 성도는 10여 년 전부터 교회 친구로부터 끊임없이 전도를 받았으나 이제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정도도 많이 아를 때, 친구가 찾아와서 기도하면 마음이 기쁘고 좋았으며 평안해졌습니다. 집이 태풍과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하면서 몸이 나아졌습니다. 태풍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어 꼭 오고 싶었던 교회에 오는 날은 정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들에게 물려준 유산이 믿음밖에 없음을 알고 아들을 인도하여 함께 새가족부 집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두 번째 정독하고 있는데 그 때로 충격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 그렇게 기쁘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새가족부 집회에 참여하면서 신앙강화 분반공부 시간에 말씀이 생생히 적용되는 것에 대해 배울 때에 정말 좋습니다. 한제희 성도의 마음 속에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성정 통신원)

다움주일 찬송

530장 “네 병든 손 내밀라고”

이 찬송가는 1904년에 ‘기독교 선교협회’의 창설자로도 유명한 앨버트 E. 실프스 목사에 의해 작사·작곡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한 마가복음 3장 1절~6절의 성경을 기초로 하여 작사된 이 찬송가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찬송가로서, 치유함을 받기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병든 손을 그리스도께 내미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

- 1절: 네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능하신 권능으로 만백성을 구원하네
- 2절: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존중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라
- 3절: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땅 사리지나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저버리사 크신 사람 배부사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못 갖춘 박자이므로 항상 시작 부분(1박자 반)을 정화하 해 주어야 그 다음 마디의 첫 박자(강박자)가 강조되면서 빠르기가 안정되어 가사 전달이 잘 된다. 부끄러운 내 손이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내어 놓는 마음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한영원원)

성도의 죽을 준비하기

인간 존재의 중심에 있는 것

죽음과 친해지는 일은 죽기 얼마 전에 행해지는 작업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일이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죽음과 친해지는 작업이 인간이 존재하는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죽음이 인간이 존재하는 중심에 있는지는 이미 앞의 글들에서 때때로 반복해왔다.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간단히 언급하자면, 죽음은 천국과 연결되는 것이며 우리는 천국을 바라며 살기 때문이다. 우리의 근본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을 할때에는, 그렇다고 이 땅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빛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빠지는 안 된다.

죽음이 인간 존재의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어떤 행동 양식을 보이는가? 금주 위임 목사님의 설교에 등장하는 아픔처럼 ‘이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함’이라고 한탄한다. 죽음이 인간 존재의 중심에 있다는 진리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진리를 발견하도록 인도하라는 강요를 받는다. 그것이 바로 지상명령 즉, 복음전파이다.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께서 속죄하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존재의 중심을 이 땅에 두지 않게 된다. 곧 천국에 이를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진리를 전하라는 강요를 어떤 이는 나중으로 미루고도 한다. 그 이유는 아직 자신도 죽음과 완전히 친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아직 죄성을 갖고 있으며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죽음과 친해지는 것과 다른 사람을 죽음과 친해지도록 도와주는 일은 별개다 아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음과 완전히 친해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는 것 즉, 죄성을 완전히 버리고 영화롭게 되는 것(롬 8:30)은 천국에 이르러서이다. 그렇다면 죽어서야 진리를 전하겠다는 말인가?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죽음과 친해지는 것이 인간 존재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그 진리를 전하여 다른 사람들도 죽음과 죽음에 이르도록 여서 도와주라.

(권오연 기자)

양호실

7교구 박수환 씨(남39세) 김희남 성도의 장남. 악물 증독 증세가 완화되었습니다. 영혼 구원과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박수환 씨 부친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9교구 황순화 권사(여68세) 폐암 말기로 악물치로 중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11교구 조유아(여3세)·조규환(남1세) 남매 기관지염이 심해 입원했다가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고 신앙도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17교구 임강수 성도(남68세) 안암으로 항암치료 중입니다. 힘든 치료를 잘 견디고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창숙 성도(여76세) 폐렴증과 대퇴부 골절로 매우 허약한 상태입니다. 다친 부위와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류동호 성도(남16세) 사방부 형제인데 경기를 심하게 하다가 의식을 잃어 혼수상태입니다. 의식이 빨리 회복되고, 병도 치유되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안의 교제

윤 하 정 (중동1부 교사)

봉사로 몇 개월 하지 못했고, 학생들과

처서어 있을 때에 가끔씩은 구분되기 힘들다(2)는 말을 듣는 내가 이런 글을 쓰게 되었다니 씁쓸한 생각이 앞선다. 하지만 중동부

에서의 봉사는 나의 20년 신앙생활 중에 가장 느린 점이 많았던 시간들이었다.

처음 교사를 맡게 된 것은 완전한 자원이 아니었다. 대학생이 되었으니 적극적으로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았지만 나는 스스로가 무엇으로 봉사하기에도 될 준비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중동 1부 기자단을 돕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과연 이 곳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곳인지 염려하게 됐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며 매주 봉사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이끄셨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주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영혼 들임을 믿게 되었다.

또 이곳에서 느낀 점은, 나는 중·고등학교 때에 교회 학교 소그룹 활동을 많이 못해서 몰랐지만 이러한 소그룹 활동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아직은 어린 학생들이라 서로를 위한 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하는 말들은 적지만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느끼고 우정을 키워 가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혹시 봉사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보다 기도하고 도전하려고 말해주고 싶고, 학생에게는 소그룹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님 안의 교제를 많이 느끼라고 말해주고 싶다.

김동하 목사 (출판국 지도)

마르다의 대본

김 성 겸 (전도사, 중동2부 부지도)

마르다는 예수께서 드실 식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눅 10:38-42).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앉아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마침내 마르다는 예수께 와서 마리아를 비난하며 불평했다. 흥미로운 것은,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고 바로 예수께 고했다는 점이다. 분명 마르다는 마리아의 태도에 대해 불만이 있었으나 마리아 대신 예수께 말을 걸었다.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지금 하는 대화 모두는 예수의 인정과 관심에 대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종류의 관심과 애정을 타인으로부터 얻기 위해 자기가 나름대로 준비한 말과 행동으로 타인과 대화한다. 일단 마르다가 한 일은 옳아 보인다. 예수께서도 식사는 하지아 했을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마르다의 식사준비는 계산된 행동으로 드러나고 만다. 그녀는 예수께로부터 자기가 기대하는 애정과 관심을 받으려는 의도로 식사준비를 열심히 했을 것이다. 예수는 마르다에게 신경 쓰지 않고서 오직 마리아에게 가르침만 주고 계셨다. 그 결과 마르다는 애초에 기대했었을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이 열심히 했다는 만족을 성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녀는 마리아에게 따지는 대신 예수께 불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녀의 대본대로라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수고할대도 관심을 주셨을 텐데, 대본대로 가지 않았다. 그녀의 대본은 마리아를 혼내시고 자신을 칭찬하실 예수를 기대하면서 짜여진 것이었지만, 상황은 그녀가 한 대본대로 흐르지 않았다.

마리아는 예수께 나아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녀는 그저 예수께서 가까이 나아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했다. 마르다가 예수의 인정과 관심을 기대하며 대본을 짜고 자기 역할을 하는 동안, 마리아는 예수와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갔다.

우리가 세워 가는 인간관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자신이 요구하는 모습대로 타인의 관심과 사랑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기대하면서 삶의 대본과 역할을 정하며 관계성을 조종하고 있지는 않는가? 심지어 예수와 우리의 관계는 또 어떠한가? 우리의 수 많은 신앙생활과 활동과 인사들이 나름대로 예수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 혹시 시도에목마라도 하나 두 용담 받지 않을까 하는 은근한 기대에서 출발한 역할극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선한 행동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적당한 시선집중과 관심을 구해하는 우리의 게임은 아닌가?

“마리아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눅 10:42).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곧 대본과 가식이 없는, 그저 한 죄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진리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오는 그 관계, 그리고 그와 똑같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형제 자매와의 친밀한 교제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진리의 생

누가복음(Luke)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④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에는 잊혀진 얼굴들을 기억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고(4:18, 6:20, 14:15-24), 반면에 어리석은 ‘부유한 자들’의 모습을 아주 예리하게 관찰하였으며(1:53, 12:16, 16:1, 16:19, 18:23, 19:2, 21:1), 당시 사회가 무시하였던 ‘여인’들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엘리사벳(1장), 안나(2장), 나인성의 미방인(7장), 유락 여성(7장), 예수를 도와준 여인들(8장), 요안나와 수산나(8장), 마리아와 마르다(10장), 18년 앓는 여인(13장), 동전장 잃은 여인(15장), 곤질 된 과부(18장)) 등 누가복음에는 많은 여성이 등장합니다. 또한 그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게도 관심을 두었고(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를 거부하는 것(9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10장)), 유일하게 감사를 표시한 사마리아인(17장)), 별 볼일 없는 사람들(7:36-50, 18:10-14; 19:1-10), 낙인찍힌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6:6, 18장의 삭개오, 19장의 혈무족 없는 여인).

결국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관점들은 사도행전에서 유감없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되었고(행 10:45),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이 생겼으며(행 11:1; 13:48; 14:27; 28:28),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행 15:17). 사랑스러운 의원이었던 누가! 우리는 그가 기록한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천하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이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민음의 창]

성도 사랑의 근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범위 내에서 사랑을 정의합니다. 언뜻 생각나는 것도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내가 그 동안 보아왔고 느꼈던 것을 사랑이라 여깁니다. 우리의 사랑은 인위적인 사랑입니다. 조직적인 사랑입니다. 친구와 짝을 구분하는 사랑입니다. 사랑 받고자 함에 따른 반대급부적 사랑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쉽게 시험에 들거나 영적 탈진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은 매력, 상호조화, 성욕, 민감성에 대한 문화적 이해라는 대인관계 개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습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요인들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합니다.』(헨리 나우웬).

이처럼, 우리의 사랑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다릅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고(눅 6:35)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의 측도에 끼워주지 않으십니다(마 5:46-47). 참으로 고차원인 사랑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감정에까지 도달하지 수급이 가질 않습니다. 지(2) 천국에만 있을 법한 이야기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성인 군자라면 몰라도 우리같은 범인(凡人)이 행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마 13:35). 주님께서 너무 큰 점을 지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은 초월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은 본디부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마 15:6). 그래서 자신을 위한 사랑 하셨습니다(눅 9:23). 그리고 당신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요 15:4).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니 그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요 15:9). 그러면 이러한 사랑은 저절로 된다고 하십니다(마 15:5). 죄된 인간이 천국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마 15:12). 그러나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요 15:9). 나같은 죄인을 위해 그 귀한 몸을 버리사 성도 사랑의 근거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위해 싸워 온 사람만이 공동체에 사랑이 없음을 통탄할 수 있는 유자격자입니다.

박 경배 (외선부 교사)

- 교정전도사 박양덕
- 단기선교사 강기엽 (소리창가)
- 단기평신도선교사 최은아 (소리창가)
- 협력선교사 허요셉 (이집트)